

‘전통한옥의 모든 것’ 강진서 만나요

10월 ‘대한민국 한옥 건축박람회’
사의재 한옥마을서 전시·체험
행사기간 강진만 갈대축제와 연계



‘제8회 대한민국 한옥 건축박람회’가 오는 10월 강진군 사의재 일원에서 개최된다. 사진은 강진 사의재 전경. <강진군 제공>

오는 10월 강진에서 ‘대한민국 한옥 건축박람회’가 열린다. 22일 강진군에 따르면 전남도가 주최하고 강진군이 주관하는 ‘제8회 대한민국 한옥 건축박람회’가 강진에서 개최된다. 이 박람회는 우리나라 전통 건축양식인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 증진을 통해 한옥의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고 한옥의 대중화, 지속 가능한 한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한옥 박람회는 6회까지는 영암에서, 7회 때는 나주에서 열렸으며 올해는 개최지 경쟁을 통해 강진군이 최종 확정됐다. 강진군은 ‘남도답사 1번지’로 전통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자연경관, 맛깔스러운 한정식이 가득하다. 또 푸소 체험 등 비대면 관광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다산의 얼과 교훈이 담긴 ‘사의재 한옥마

을’을 중심으로 한옥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박람회 취지에 부합한 최적지라는 평가다. 강진군은 박람회 행사 기간 중 개최 예정인 ‘제6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와 연계해 강진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강진의 문화자산과 자연경관을 활용해 한옥의 매력을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

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지역의 문화자산과 공간을 활용한 박람회 개최로 한옥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이라며 “강진만 갈대축제와 연계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함평군·수산자원공단

함평만에 낙지 산란·서식장

2025년까지 40억 들여 조성

함평군과 한국수산자원공단이 함평만에 낙지 산란의 최적 환경을 조성한다. 함평군은 해양수산부의 ‘2021년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최근 한국수산자원공단과 낙지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함평군과 수산자원공단은 오는 2025년까지 5년 간 함평만 42ha에 어미낙지 산란 최적 환경을 조성한다. 주요 사업은 침적폐기물 제거, 낙지자원 및 먹이생물 이식, 어장자율관리, 효과 조사 등이다. 이를 위해 국비 20억원을 포함해 총 40억원의 사업비를 연차별로 투입한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kwangju.co.kr



함평군과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함평만 42ha에 5년간 40억원을 투입해 낙지 산란·서식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함평군 제공>

장성군, 국가 암관리 평가 ‘대상’ 수상

‘방문·비대면 환자 관리’ 성과

장성군보건소가 국가로부터 암환자관리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장성군은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주최한 ‘2020년 전국 국가암관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장성군은 앞서 ‘전남도 암관리사업 평가대회’ 제1회 암환자관리 부문에서도 최우수기관상을 받아

위상을 드높였다. 국가암관리 우수사례 공모전은 시·도 보건소, 지역암센터, 호스피스 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암관리 사업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선정 전파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장성군보건소는 고위험군의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비대면’ 환자관리에 최선을 다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는 유무선 통신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안부를 묻

고 환자들의 건강 이상 유무를 챙겼다. 방문간호사가 암환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영양제를 공급하고, 불안감 해소를 위한 상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양질의 보건서비스 제공에 노력 중인 장성군은 국가암 조기검진, 암환자 의료비지원, 암 생존자 지지프로그램 등 주민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환자와 가족의 암극복을 위해서는 신체·정신적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암 환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나눔 실천 온정의 손길

강진탐진로타리클럽, 코로나 극복 물품 기탁

강진탐진로타리클럽은 최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써달라며 대형 백신냉장고 2대와 안면보호구 2000개 등 3300만원 상당의 코로나 극복 물품을 강진군에 기탁했다. <사진> 임양수 강진탐진로타리클럽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방역에 힘쓰는 강진군 방역당국의 노고에 감동했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들어가면서 시기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백신냉장고와 안면보호구를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담양 봉산면, 봄향기 가득 ‘봉산택 이음반찬’ 나눔

담양군 봉산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100가정에 봄동김치를 전달하는 ‘봉산택 이음반찬 나눔’을 실천했다. <사진> 협의체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재배한 봄동배추를 후원받아 여성자율방범대(대장 노지현) 대원들이 봄동김치를 정성껏 장만해 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 ‘봉산택 이음반찬 나눔 활동’은 지역의 사회단체들이 릴레이로 매달 밑반찬을 만들어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올해로 4년째를 맞고 있다. 진철 협의체 위원장은 “바쁜 와중에도 나눔활동에 동참한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어



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나주 유진기업(주), 남평읍에 봄철 이불 10세트 전달

나주시 남평읍에 소재한 유진기업(주) 나주지점이 최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100만원 상당의 봄철 이불 10세트를 남평읍에 기탁했다. <사진> 남평읍은 기탁 물품을 지역의 저소득 중증장애인 10가구에 전달했다. 정우권 유진기업 나주지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눔 가치 확산에 앞장서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장흥 여성봉사회, 26년째 저소득 가정 밑반찬 제공

장흥군 여성자원봉사회가 26년 동안 매일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밑반찬을 제공해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하고 있다. 장흥군 여성자원봉사회는 최근 지역의 혼자 사는 어르신과 취약계층 30세대에 밑반찬을 전달하며 말벗이 되는 봉사활동을 했다. <사진> 이 단체는 지난 1995년부터 매달 빠지지 않고 밑반찬을 제공하고 있다. 건강을 챙기기 어려운 취약계층 30여 세대를 선정해 회원들이 각자 준비해 온 물김치, 명태조림, 멸치볶음과 버너나·요구르트 등을 챙겨 가정에 전달하고 있다. 이성숙 여성자원봉사회장은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kykim@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